

‘듣기’ 보다는 ‘기록’ 을 기대했는데

빛바랜 유물들을 바라볼 때처럼 지나간 역사를 탐구하고 기록하는 일은 언제나 가벼운 떨림을 동반한다. 해방후 46년 동안 출판계는 물론 우리의 문화사에 뚜렷한 성과를 남긴 '걸작 기획' 들을 찾아나설 때의 우리 모두의 느낌도 꼭 그러했다. 지금과 같이 출판업이라는 일이 거대화하고 상업화하기 훨씬 전, 오로지 뜨거운 사명감 하나로 열정을 살라 만들어냈다는 신화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당시를 긴장과 호기심으로 거슬러 올라갔던 이 작업은 그러나 우리 출판계의 안타까운 허점들을 발견하는 씩씩한 뒷맛을 남겨주고 말았다.

‘무성한 이야기’로 전해지는 그 걸작들을 단지 이야기로서만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을 보고자 했다. 그러나 근거가

될 만한 기초자료는 물론 사람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장 난감하기로는 출판사도 없어지고 당시를 증명할 유일한 사람인 편집책임자나 사장까지도 이미 작고한 경우다. 이때 유일한 자료는 책뿐이나 그나마도 장광설 일색의 머릿말 뿐일 때는 “대단한 책”의 객관적 사실이 되기엔 턱부족이다. 다행히 당시 편집에 직접 관여한 원로 출판인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기억’에 의존,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부분에서 알쏭달쏭해 하여 듣는이를 안타깝게 한다. 또한 당사자의 입을 통해 당사자 자신이 했던 일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비판적인 ‘청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렵다.

당시 명성을 누렸던 출판사가 지금도 있는 경우

도 아쉬움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기억’을 더듬으며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이다. 비교적 잘 구비된 자료라며 내놓는 것도 홍보용 팸플릿이거나 대개가 신문기사 스크랩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모로 보나 보충자료일 뿐이다. 또한 스스로도 자궁을 가지는 기획물임에도 출판사 자체 내에 책을 보관하고 있는 곳도 드물다. 있다 하더라도 드문드문 이가 빠진 반쪽이기 일쑤다.

결국, “그 명성이 과연 타당한가, 하다면 어떤 점 때문에”라는 비교 평가는 차치하고 발행년도, 재판정도, 판권사항, 기획목적, 기획참가자 등과 같은 기초적인 사항들을 자기 손으로 정리해 둔 것이 드물다는 말이다. 특히 해방이후부터 60년대 사이의 일은 원형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들어 일부 출판사가 책목록이나 회고록, 社史 등과 같은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이다. ‘기록’ 한다는 것은 곧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거다. 그럼 점에서 우리는 그 의식을 결여한 채로 지나오지 않았나 싶다. — 정혜옥 기자

재미있는 책 이야기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 ‘재미있는 책이야기’도 오소 라즈니쉬의 「내가 사랑한 책」 가운데 언급된 것 중 우리에게 익숙한 목록을 중심으로 발췌·소개한다.

▲희랍인 조르바

나는 언제나 그의 책을 사랑했다. 그는 그리스인으로 이름은 카잔차키스이며, 바로 「희랍인 조르바」의 저자이다.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지만 「희랍인 조르바」는 걸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작품을 남긴 사람은 한 사람의 붓도 아니고 한 사람의 마하비라도 아니었으나 그러한 경지에 이를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자였다. 이미 충분히 익어서 시기가 되면 언제라도 떨어질 그러한 자였다.

조르바는 나의 연인의 한 사람이다. 나는 기인을 사랑한다. 조르바는 아주 이상한 기인이었다. 비록 실존 인물이 아니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나에게 그는 살아있는 인물 이상이다. 그는 에피쿠로스, 차르바카스 등 세상의 모든 유물론자를 대표한다. 단순히 그들의 대표일 뿐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모습이 바로 조르바이다.

▲논어

나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자의 가장 유명한 책을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논어」는 그의 대표작이다. 나에게 이 책이 나무의 뿌리와 같다. 추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

인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필요악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논어」는 나의 필요악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수학자이면서 학교 교장이었던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운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다. 나에게 장 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와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동격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비록 짧은 동화이지만 사르트르의 그 작품에 뒤질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나더러 두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기꺼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선택하고 「존재와 무」는 아궁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누구도 꺼낼 수 없도록 아궁이 깊숙이 구겨넣을 것이다. 나에게 루이스 캐롤의 이 짧은 동화가 무한한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듯이. 사실 베케트는 ‘신’이란 단어 대신 ‘고도’란 단어를 기발하게 생각해냈다. 모든 인간이 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기다리는 것은 실체가 없다. 모두가 다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이다.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

▲나와 너

마르틴 부버는 이 책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다. 내가 이 책을 끄는 것은 그것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예술적으로 씌어진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이지만, 이 책 속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 마르틴 부버 자신에게 영혼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걸작이라 해도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을 것을 어떻게 집어넣겠는가.

「나와 너」는 유대인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 책이 자신들의 종교를 대변해준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유대교든 힌두교든 세상의 어떤 종교도 대변하지 않는다. 다만 마르틴 부버라고 불리우는 저자의 무지를 대변할 뿐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 위대한 예술가였고 천재였다. 천재가 무엇인가에 대해 쓰기 시작하면 비록 그것이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걸작을 남기기 마련이다. (...) 그의 「나와 너」는 실패작이다. 실패작이긴 해도 걸작임에 틀림없다.

▲공산주의 선언

나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게 반대하지만 두 사람 공저의 「공산주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보다 더 열렬한 반공주의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 소책자 「공산주의의 선언」을 사랑한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씌어진 방식을 사랑한다. 내용 말고 형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 그렇다, 나는 「공산주의 선언」이 씌어진 형식을 사랑하며, 그 내용은 싫어한다.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웃은 좋아하되 그 웃을 입은 사람은 싫어할 수 있는 법이다.

▲전쟁과 평화

세상의 모든 언어로 씌어진 작품 중에서 가히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 할 수 있다. 걸작일 뿐 아니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이다. 나 말고 그러한 대작을 읽는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이 작품은 장편이라서 두께를 보는 것만으로도 질리게 만든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작품은 장편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전쟁과 평화」는 인간의식의 긴 역사이다. 따라서 몇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성격의 글이 아니다. 물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독자를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준다. 고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그렇다, 말 그대로 고전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88호 / 1991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鐵鏞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姬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孝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吳
宋相庸	申福龍	愼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景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漢
李相日	李勝羽	李元龍	李重漢
李昭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炳鍾	鄭雲映	鄭晉錫
鄭謙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顯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감지되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